

불교에서 본 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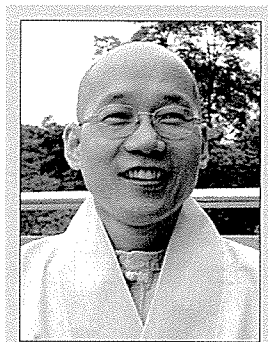
- 유식불교의 삼성설(三性說)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래적 성품과 유식불교에서 분류하는
인간의 마음의 세가지(집착, 관계, 완성) 존재형식으로부터
초월적인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영성은
오히려 불교에서는 법성, 각성, 자성, 불성의 용어로 표현되어 진다.

1. 머리말

필자가 청탁받은 내용은 ‘영성을 불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점은 지난 번 <성안드레이 신경병원 개원 15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강의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아마도 그때의 기억이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청탁이 된 것 같다.

그때 불교에서는 영성(靈性)이란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영성이란 개념이 ‘초월적인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며, 경험 세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실체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교에서는 영성(靈性)이란 표현보다는 모든 현상[法]의 본질이란 의미에서 법성(法性), 그것은 깨달음[覺]의 자질인 까닭에 각성(覺性), 그것은 외부로부터 부여된 바가 아니라 스스로[自]의 성품인 까닭에 자성(自性), 그것은 누구나 본래[本]부터 구축한 인간의 고유한 성품이기



인 경 스님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에 본성(本性), 또한 부처[佛]의 성품이기에 불성(佛性)이란 표현을 특히 대승불교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불교에서 자성이나 본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초월적인 존재를 전제한 해석을 수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학에서 영성이란 개념을 초월적인 신의 존재와 결부시켜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매우 곤란할 것이다. 이것은 영성이란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점은 문화적인 배경이나 종교적인 신념체계와 관련되는 까닭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가톨릭에서 보는 영성에 대한 불교적 논의로 해석하여 접근한다면, 필자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필자는 가톨릭에서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철저하게 불교적인 입장에서 영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판단되는 불성, 혹은 성품에 관한 불교적인 논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할까 한다.

2. 본래적 성품이란

영성에서 초월적인 존재의 흔적을 제외시키면, 불교에서는 가장 가까운 개념은 결국은 '견성성불(見性成佛)'이란 불교의 모토에서 보듯이, 불성 혹은 본성의 논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성불은 불교의 핵심된 목표로서, 자기의 성품을 올바르게 보는 일이 다름 아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자신의 성품을 올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자질이 본래적으로 갖추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불성(佛性)의 의미이다. 영성(靈性)에서 영(靈)은 그리스도인에게 초월적인 신을 의미한다면, 불성(佛性)에서 불(佛)이란 바로 모든 인간에게 갖추어진 부처를 가리킨다. 가톨릭에서 신의 의미가 그 핵심이듯이, 불교에서 부처가 수행실천의 핵심을 차지한다.

불교에서 본성, 혹은 성품이 무엇인지를 자꾸 질문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천의 과제로서 바로 화두이기도 하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참된 나라고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늘 반복된 질문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질문이다. 불교, 특히 간화선 수행에서는 이런 질문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를 수행의 한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질문은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함이고, 문제가 확실하면 해결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화두를 참구하여 확철한 깨달음 자체가 바로 각성(覺性)이다. 이런 깨달음의 촉발은 의심하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참된 나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통찰하는 것, 곧 자기의 성품을 깨닫는 길목이다. 보통 불교에서 인간

영성에서 초월적인
존재의 흔적을
제외시키면,
불교에서는 가장
가까운 개념은
불성 혹은 본성의
논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마음(心)의 문제를 중시하였고, 대승불교 이후 간화선에서는 인간의 본성(性)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것을 보통 마음과 성품에 관한 논의란 의미에서 심성론(心性論)이라고 부른다. 성품은 불변의 바탕을 전제하고, 마음은 현실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곤 한다.

이들테면 불의 본성은 태우는 것이고, 물의 본성은 젖음이다. 불의 본성인 태움은 불이 났을 때, 산과 집을 태우고, 가스를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나무들을 태움으로써 드러난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불의 본성이 출현하여 작용함을 본다. 마찬가지로 물의 본성은 젖음이다. 물로 세수를 할 때, 얼굴이 젖고, 설거지 할 때, 수건이 젖는다. 그곳에서 물의 본성이 작용하여 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물이나 불의 본성이 아니라, 나의 본성은 무엇인가? 또한 어느 곳에서 나의 본성의 작용은 출현하는가? 나는 어떤 곳에서 나의 존재를 느끼고, 나 자신을 실현한 것이라고 자각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여 참구하는 일을 '마음공부'한다고 한다. 끊임없이 일상에서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마음은 작용하는 곳, 예를 들면, 보는 곳[見]에 있고, 듣는 곳[聞]에 있다. 순간순간 마음이 작용하는 곳에서 '무엇이 참나인가?' 이런 질문함을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의 집착으로 벗어나서 본래의 자기에 계합하는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식의 홍수 속을 살아간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산다. 이럴 때, 잠깐 지하철 속에서나 화장실에서라도 무엇이 나인지를 생각하여 불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개념적인

이해로서 논리적인 해명을 시도할 수가 있다. 이점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신의 계시를 언어로써 설명하고 해명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의 본래적인 본성은 언어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경험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깨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쩌면 잠들어 있다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는 이 본래적인 마음을 개념적인 이해의 틀로서는 접근할 수가 없다. 그것은 청정하고 그 스스로 밝게 빛나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먹구름에 휩싸여 알지 못할한다.

3. 성품과 마음작용

평범하게 생각하여 보자.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음은 어떠한가? 그것은 세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어쩔 땐 날씨처럼 변덕스럽게 힘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종교적으로 놀라운 평온과 행복감에 잠기기도 한다. 또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보낸다. 유식 심리학에서는 이런 인간 마음의 존재형식을 <집착>, <관계>, <완성>라는 세 관점에서 구별한다. 보통 이것을 마음의 세 가지의 본성(唯識三性說)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유식(唯識)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는 오직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이기 때문이다. 유식이란 말은 유식무경(唯識無境)의 줄임 말이다. 번역하면 ‘단지 의식이 존재할 뿐, 밖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점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관련이 된다. 세계 혹은 자아는 외계의 대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가공물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본성은 그 자체로서
경험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깨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쩌면
잠들어있다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가?

전통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외계의 대상은 실재한다는 입장과 그것은 단지 마음의 인식에 의해서 구성된 이미지일 뿐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자를 실재론(實在論)이라고 했고, 후자를 유명론(唯名論)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처음 언어를 배울 때부터, ‘언어와 사물과의 관계’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일반적으로 말, 언어가 있으면 그곳엔 반드시 ‘상응’하는 대상, 사물이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다. 우리는 ‘사과’라는 말에는 그것과 상응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소박한 믿음을 가진다. 일상에서 느끼는 장미꽃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모든 장미꽃을 동시에 경험할 수 없다.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에 놓여진 ‘지금 여기’의 이 꽃을 보고 있다. 그것을 장미꽃이라고 이름 한다면, 그것은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드러난 대상인 것이다. 그것은 내가 창조한 꽃이다. 그곳에서 느끼는 꽃잎의 곡선, 색깔과 정서는 내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처음부터 장미꽃은 의식(인식, 마음)과 관계없이 그곳에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곳에 존재한 것은 내가 그것을 꽃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존재하고 일정한 가치를 부여받는다. 우리는 햇살을 파동이나 입자라고 객관적 존재의 양식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햇살은 관찰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실험기구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파동으로 또는 입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연은 저기에 객관적으로 인식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장미꽃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다. 장미꽃은 스스로 장미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햇살에 의한 시신경의 자극이고, 그것을 ‘장미꽃’이라고 규정하는 다만 ‘의식’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다.

우리는 화가처럼 스스로를 창조하면서 살아간다. 삶이 외계의 대상이고,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곳엔 나의 책임이란 없다. 하지만 그것을 불확실한 모습으로 내가, 의식이,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책임이고, 나의 선택이다. 삶은 저기에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피조물로서 놓여 있지 않다. 삶은 나의 창조물이기에 '나'는 삶의 현장에서 도망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삶을 창조하는 주인공으로써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나의 실존적인 질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회피한다. 공허한 그것을 채워주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환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아'라고 집착한다. 이것이 병리적인 현상에서부터 일상에는 적용된 수많은 고착들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집착은 외계의 대상에 대한 믿음,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소박한 실재론이다. 집착을 한역에서 '변계소집(遍計所執)'으로 번역했다. 변(遍, pari)은 두루함을 의미하고, 계(計)는 사랑한다는 뜻이며, 소집(所執)은 집착된 대상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것은 의식이고, 그 대상은 자아와 세계이다. 이 집착의 마음은 장미꽃처럼, '자아와 세계가 저기에 존재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다. 이것의 의미는 사물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며, 인식하는 나와는 별개이고, 그것은 언어에 의해서 기술된다는 것이다. 유식에서는 이런 자아와 세계를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망한 분별의 결과물로 본다. 허망한 분별, 이것이 바로 변계소집성이다. 자아와 세계는 집착에 의해서 구성된 가공물이다. 집착이 자아와 세계의 본질이다. 자아는 세계가 항구적으로 존재한다는 신념체계를 고집함으로써 자신 정체성을 확립시킨다. 왜냐하면 자아란 대상과의 의존관계를

자아와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것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조건화된
존재이다.

통해서 자신의 항상성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일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숙과 발달로 규정한다. 하지만 유식 심리학에서 이런 상태를 잠자는 상태(睡眠, 無明)라고 부른다. 이 상태는 마치 꿈꾸는 것으로 묘사되고,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존재하는 그대로 보기를 거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 연기관계이다. 원어는 의타기성(para-tantra)이다. 사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발생한다(tantra)는 것을 의미이다. 'sva'가 '자신'을 의미한다면, 'para'란 타자를 의미한다. 자아와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것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조건화된 존재이다. 상황이란 원인(因)과 조건(緣)의 의미이다. 꽃병은 저기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인력, 공기의 압력, 온도 등과 상호작용 관계에서 존재하고, 그것을 포착하는(집착된 나의) 의식에 의해서 저기에 존재하는 것이 되며, 개념과 이름에 의해서 그곳에 존재한다고 기술된다. 이렇게 하여 장미꽃과 꽃병은 구별되고, 너와 나는 다른 존재로 조건지워진다. 그래서 서로는 상호 의존된 관계를 가진다. 꽃병은 장미꽃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가치가 있고, 장미꽃이 꽃병에 꽂아짐으로써 비로소 방안이 밝아진다. 마치 배우가 배역을 맞게 될 때 비로소 무대에 설 수 있듯이, 우리는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건화된 상황으로서 연기(緣起)란 고통스런 집착이 발생하는 근거로서 현실적 관계 양식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현실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이룬다.

세 번째 완성의 어원은 pari-nispanna로서, 원성실성(圓成實性)으로 번역되었다. 허망되지

않고 진실하며, 변함이 없이 항상됨을 말한다. 원성(圓成)은 완성되어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럽고,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종종 현상과 대립되는 본체나 실체와 같은 철학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여, 인도나 서구 전통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본체라는 용어는 세계에는 변함이 없는 초월적 대상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고, 실체이란 말에는 자아와 유사하지만 다른 새로운 자아의 개념을 상징할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이라면 결과적으로 유식에서 말하는 유식무경의 인식론에 위배되어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성실성이란 마음의 평정, 경험적 중도(中道)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어떤 이들은 꽃병의 존재에 주목하고, 어떤 이들은 장미꽃만을 본다. 이것이 첫 번째의 집착이다. 한쪽에 치우친 집착은 선/악, 더러움/깨끗함, 옳음/그름으로 마음을 분열시킨다. 마음이 번뇌에 휩싸이고, 결코 평안하지 못하다. 하지만 이들 개념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 자체로 성립되지 못한다. 더러움과 깨끗함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된다. 이것이 두 번째의 연기의 의미이다. 연기의 의미는 악은 선으로 인하여, 더러움은 깨끗함으로 인하여, 미움은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의 정화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랑과 미움의 변주곡을 함께 벗어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곳에서 경험된 내용은 초월, 산뜻함, 내적 평온이다. 이것이 원만함, 완성의 의미이다.

이상의 세 가지 마음을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뱀과 새끼줄에 비유하곤 했다. 어떤 사람이 뱀에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밟았다. 그 순간 놀라고, 공포를 경험하였다. 그는 뱀을 밟은 것으

로 착각을 했기 때문이다. 뱀을 집착으로, 새끼줄을 연기로, 짚을 완성으로 설명한다. 집착이란 착각의 산물이고 결과는 공포와 두려움이다. 그래서 진실을 회피함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옆 사람이 그때 무엇을 보았는지 질문하고, 함께 탐색하기를 제안한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저항도 하겠지만, 끝내는 신뢰가 생겨나서 당시 상황에 다시 직면할 용기를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다고 밝혀지면,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고, 공포는 치유된다. 다시 그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뱀이란 자신이 만든 환상이고, 새끼줄 또한 짚으로 만들어진 연기적 관계의 소산임을 자각하고, 그래서 집착과 관계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자리임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완성, 즉 해탈을 경험할 것이다.

집착에서
현실관계로
옮겨오는 것은
상담과 심리치료의
과정이라면
현실관계를 뛰어넘는
길은 명상의
기술이 요청된다.

로 착각을 했기 때문이다. 뱀을 집착으로, 새끼줄을 연기로, 짚을 완성으로 설명한다. 집착이란 착각의 산물이고 결과는 공포와 두려움이다. 그래서 진실을 회피함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옆 사람이 그때 무엇을 보았는지 질문하고, 함께 탐색하기를 제안한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저항도 하겠지만, 끝내는 신뢰가 생겨나서 당시 상황에 다시 직면할 용기를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다고 밝혀지면,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고, 공포는 치유된다. 다시 그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뱀이란 자신이 만든 환상이고, 새끼줄 또한 짚으로 만들어진 연기적 관계의 소산임을 자각하고, 그래서 집착과 관계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자리임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완성, 즉 해탈을 경험할 것이다.

4. 명상과 심리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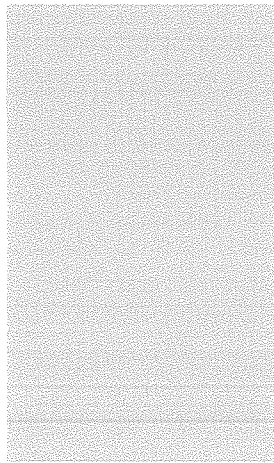
인간의 본성을 유식불교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의식이 성장하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수행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번뇌를 극복이라는 점에서 집착, 관계, 완성의 과정은 심리치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된다.

첫째로 집착의 탐색단계에서는 내담자가 가지는 증상으로써 집착의 양식과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두 번째의 관계탐색 단계에서는 그런 집착이 어떤 관계에서 형성되어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살펴본다. 이것은 정형적인 심리치료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집착은 현실적인 관계에서 기인된 까닭이다.

교육은 원목자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통된 이해와 인식이 마련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교회 장상들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된다. 🐦

▶ 35p에서 이어짐

세 번째 완성의 단계는 현실적인 관계에 대한 적응의 문제이기보다는 본래적인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여 근본적인 깨달음을 성취하는 단계이다. 집착에서 현실관계로 옮겨오는 것은



상당과 심리치료의 과정이라면 현실관계를 뛰어넘는 길은 명상의 기술이 요청된다. 하지만 불교명상은 현실관계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건강한 성품을 철저하게 경험함으로써 발생된다. 이것은 결코 현실관계를 부인하는 초월의 방식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현실에의 단순한 적응관계도 아니다. 내적 본성의 완성은 내재적 초월, 혹은 초월된 내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 TIP

청 계 천

2005년 10대 히트상품 선정 결과

순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1	청계천	싸이월드	디지털포토	월드컵
2	경제경영서적 '블루오션전략'	복합기능휴대폰	로또	컬러휴대폰
3	위성 DMB폰	비타500	신가전	메이드인차이나
4	주식형 간접투자상품	한류스타(온사마)	웰빙상품	주상복합아파트
5	이종격투기 K-1	대용량 MP3	퓨전사극	홈시어터
6	역적녀 주인공 TV드라마 (금순이, 삼순이, 맹순이)	자가화장품	재테크서적	영어학습
7	카트라이더	파리의 연인	수입차	테이크 아웃점
8	내비게이션	마법천지문	지하철신문	변형명품(짜통)
9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주택장기대출	지식검색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10	블로그	매운 음식	이민상품	한방제품
기타	요가, 반신욕, 소형SUV, 드라마 '이순신', 현대카드(CF송), ipod, 초슬림휴대폰, 블랙컬러휴대폰, 브랜드아파트, 용산국립중앙박물관, 은나노용품, 녹차음료 등			

성별 선정 결과 비교

순위 응답자	남 성	여 성
1	청계천	청계천
2	경제경영서적 '블루오션전략'	역적녀 주인공 TV드라마
3	이종격투기 K-1	요가
4	위성 DMB폰	경제경영서적 '블루오션전략'
5	주식형 간접투자상품	주식형 간접투자상품
6	카트라이더	위성 DMB폰
7	역적녀 주인공 TV드라마	반신욕
8	내비게이션	카트라이더
9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블로그
10	블로그	웰컴 투 동막골

주 : 굵은 표시부분은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상품
자료제공 : 삼성경제연구소

